이란 공습의 영향 점검

투자전략팀
경제분석 이승훈
seunghoon.lee@meritz.co.kr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채권분석 윤여삼
yeosam.yoon@meritz.co.kr

Meritz Research 2026. 3. 3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의 핵시설 무력화와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전쟁 초기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수일 수주 내로 안정화된다. 기본 시나리오로는 한 달 이내 교전 이후 교착 혹은 협상국면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대안 시나리오: 역내 확전 혹은 장기화).

OPEC 증산, 미국 증산 및 전략 비축유 방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중동/중국의 이란 압박 등을 고려할 경우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현실화 및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 또한 현재 유가 상승 시작점이 65달러로 과거 대비 심리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2022년보다는 낙관적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주식 시장은 1달 이내 5~10% 조정 후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전쟁 이후 시장 추세가 하락 전환된 과거 사례의 공통점은 유가 급등 및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이다. 고유가 장기화 시 하락 구간이 1달 이상 지속될 위험이 있다. 단기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귀금속 ETF 및 원자재 수출국(브라질, 멕시코 등) 비중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되 공습 종료의 기미가 보일 수 있는 3~4주차 들어 낙폭 과도 국가 및 우량 성장주 중심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민감도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최근 미국 금리 하락을 이끌었던 영국발 신용리스크 확산 여부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채 10년 4.5%, 국고 10년 4.0%까지 상단이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

표1 **이란 전쟁 시나리오와 금융시장 영향**

시나리오	Base	Alternative
내용	한달 이내 교전 이후 교착 혹은 협상국면 전환	역내 확전 혹은 장기화
금융시장 전반	전쟁 초기 확전기에 가장 격렬, 수일 혹은 수주 내로 안정화	공급망 충격 유발 및 인플레이션 우려
유가	85달러 내외 등락	100달러 돌파
증시	1달 이내, 5~10% 조정 이후 반등	하락 구간 1달 이상 지속
채권	미 금리: 영국발 신용리스크 확산 여부에 연동	미국 10년 4.5%, 국고 10년 4.0%까지 상단 위험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 이란 공습의 배경과 거시경제 영향 (이승훈)

사건의 발단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작전명 “장대한 분노(Epic fire)”와 “사자의 포효(Lion’s Roar)”를 개시하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2월 19일 Axios가 대이란 공습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도했고, 미 해군이 항공모함 2척을 중동지역에 전개하면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들이 힘을 받았고, 수 개월간 기획된 것임이 공습 이후에 확인되고 있다. 다만 공습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은 핵/미사일과 경제제재 해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 가던 상황이었기에 중동 정세에 정통한 학계에서도 이번 공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공격은 작년 6월 이스라엘 주도로 이란 핵시설 무력화를 도모하며 벙커버스터까지 사용했던 “깨어나는 사자(Rising Lion)” 작전 이후 8개월 만이다. FT에 따르면, 작년 6월 공습 이후 Isfahan과 Natanz에 위치한 핵시설이 상당 부분 복구되면서 핵개발에 대한 억지(deterrence or delay) 필요성이 다시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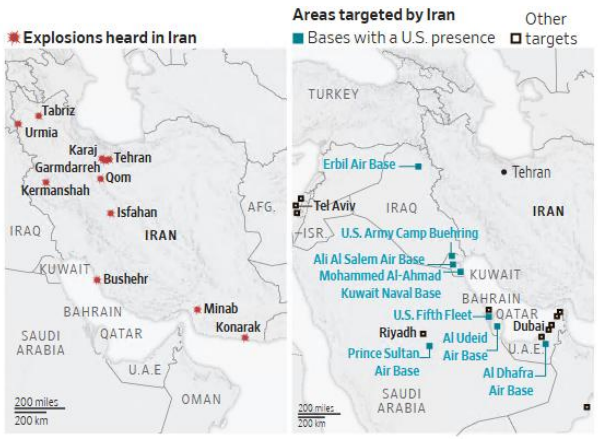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란 핵협상에서 미국의 1)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2)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3) 지역 무장세력(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반군) 지원 중단 요구를 이란이 주권 침해라 인식하며 수용을 거부(핵농축 자체는 권리, 탄도미사일은 국가 억지력)하고, 이란 핵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해 관계(미국을 부추겼을 가능성)까지 맞물렸다.

따라서 양국은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을 지속하는 대신 직접 핵시설 무력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정권교체를 위해 이란 정치와 군사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단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 시위대 지원이지만, 이면에는 추후 이란 핵 문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도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1 **2025년 6월 공습으로 파괴된 핵시설: 상당 부분 복구**

자료: F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이란이 폭격을 당한 지역 및 이란이 공격한 지역**



자료: Wall Street Journal (3월 2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현재까지의 전개 상황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이란의 제2대 라흐바르(제정일치인 이란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 위의 초법적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를 비롯, 국방장관, IRGC(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핵심 정치/군부 인사가 사망하였다. 공습 대상에는 이들 인사의 관저/은신처뿐 아니라 주요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 IRGC 본부, 레바논 내 헤즈볼라 기지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1)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내 미군이 주둔한 기지들을 공습했으며, 2) 항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2)의 경우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압박이 더해져 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의 통행이 28일 이후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급 자제를 이란에 요청했지만, 쿠웨이트처럼 그들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경우도 있었다. 당사국을 넘어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전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유이겠다.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그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이 작전이 4주간은 지속될 수 있고, 유사시 모든 것을 접수할 때까지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이란은 하메네이 사망 이후 페제시키안(대통령)-에제이(대법원장)-아라피(종교인)의 라흐바르 3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내 권력과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향후 수 일간이 분수령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 시나리오로는 한 달 이내의 교전 이후 교착 혹은 협상국면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안 시나리오: 역내 확전 혹은 장기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총론

전쟁은 생사가 결부되는 비극이지만, 금융시장은 전쟁이 길어지고 교착 상태에 진입하면 이내 둔감해진다. 따라서 금융시장 반응은 전쟁 초기 확전기에 가장 격렬한 편(risk-off)이며, 여타 지역으로의 확산이나 에너지 시설 타격과 같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수 일 혹은 수 주 내로 안정화된다.

유가: 가장 민감한 자산군은 원유를 비롯한 화석 에너지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1월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Petroleum and Other Liquid Fuels) 생산은 470만 배럴/일로 전세계 생산량(1.06억 배럴)의 4.4%에 달한다. 올초 이슈가 되었던 베네수엘라(84만 배럴)의 6배에 준하는 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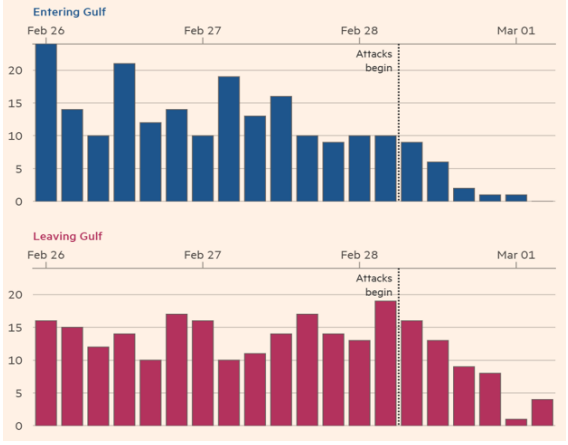
원유와 정제시설에 대한 타격이 없더라도, 이란이 글로벌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운송 문제(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항만 타격)로 중동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수에즈 운하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돌리겠으나, 중동산 원유 수송의 20% 내외를 점하는(1Q25: 19.8%)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을 완벽히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브렌트유는 공습 직후 배럴당 77달러까지 상승했으나, 1달 이내에 10~15%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야 한다. OPEC+가 3월 1일 회의를 통해 4월부터 20.6만 배럴/일 추가 생산을 결의했으나, 과거 중동 사태 때 50~100만 배럴/일 증산 결의를 해 온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증산을 하더라도 해협이 막혀 수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가안정의 축은 미국이지만, 에너지 정책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전략비축유 방출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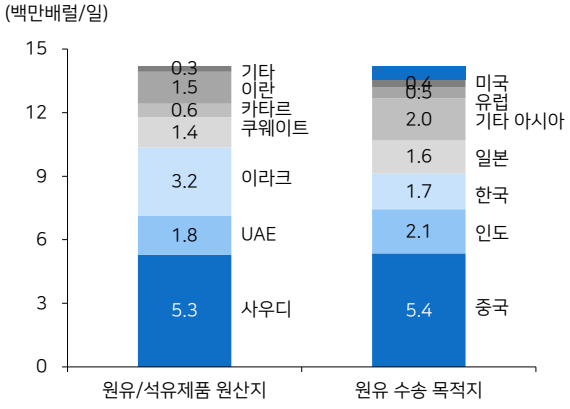
한편, 일부에서 주장하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현실화되어 길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다. 동 리스크가 높아지면 1) OPEC의 잉여생산능력 활용한 증산, 2) 미국의 증산 및 전략비축유 방출,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를 비난하는 중동/중국의 이란 압박이 거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3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200m 이상 선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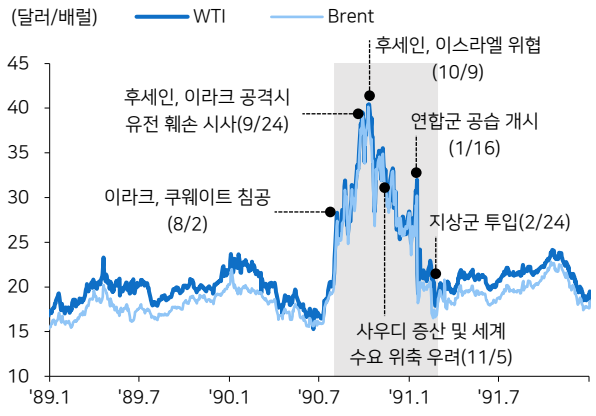
주: 4시간 단위임. 자료: FT (3월 1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원유의 원산지와 목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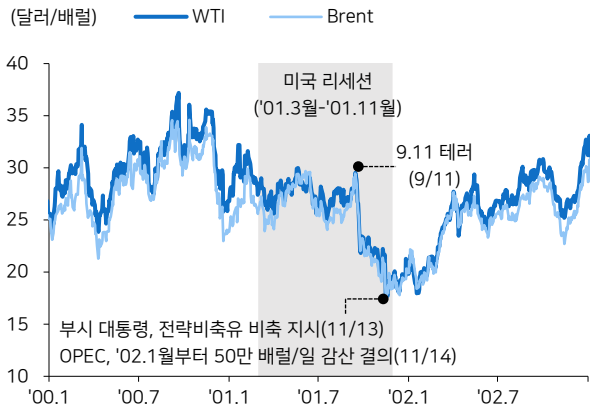
주: 1Q25 기준.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걸프전 전후 유가 동향 (89~91): 유가 급등**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9.11 테러 전후 유가 동향 (00~03): 유가 급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acro: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유가와 운송비 상승이 유발할 인플레이션에 집중되어 있다. 동 이슈가 단기에 그칠 경우 원유수입국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길어야 2개월이다. 만약 유가가 높아진 상태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전망도 바뀔 수밖에 없다.

IMF, BIS 등 주요 전망기관은 유가가 10% 상승하여 12개월 동안 상승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의 선진국 인플레이션 충격을 대략 0.1~0.3%p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현실화에 따른 운송비 부담(해상운임 급등)까지 고려하면 단기 인플레 충격이 증폭될 소지는 있다.

정책금리와 환율: 중앙은행의 경우, 공급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향후 몇 개월 간 함께 자극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금리인하 지연이나 금리인상 시나리오를 상정하기 어렵다. 외환시장에서는 중동발 공급충격 및 우려로 유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달러화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것이다.

달러화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도 일부 있겠으나, 미국 에너지 자립과 석유 순수출국 지위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경로로 작동함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한국 원화는 이러한 이벤트에서 전형적인 risk-on 통화의 역할에 충실하여 약세를 보이게 되며, 3월 2일 역외에서 달러/원은 1,460원을 상회했다. 글로벌 증시 조정과 유가 상승 구간에서 원화가 약세를 시현할 것이나, 당국 임계치인 1,480원을 상회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 마저도 전쟁이 정점을 지나면 여기에서 비롯된 달러 강세-원화 약세는 되돌려질 것이라 예상한다.

한국 경제: 100달러/배럴을 넘는 국제유가가 장기화되며 국내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다면(수입물가 10%p=장기 한국 CPI 1%p), 한국 경제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對이란 수출은 전체의 0.02%이며,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UAE, 오만, 사우디, 카타르의 7개국을 추가로 합쳐도 의존도는 2.10%에 불과(2025년)하다. 작년 실적치와 원유수입액 만을 기준으로 한국 경상수지 균형을 유발할 원유도입단가는 190달러/배럴 이상으로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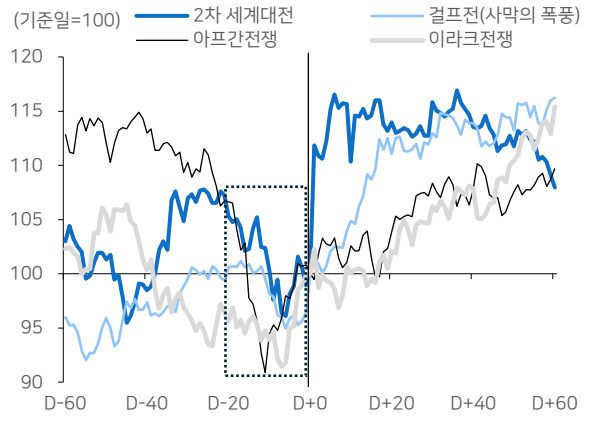
2. 주식전략: 베이스 시나리오, 지수 5% 내외 변동폭의 단기 조정 (황수욱)

미국이 참전하거나 원조한 과거 전쟁 사례를 분석하면, 예측된 전쟁과 예측되지 않은 전쟁간 주가 추이 차별화가 나타난다. 예측된 전쟁은 전쟁 약 1달 전부터 전쟁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해, 전쟁 시작 직전 상당폭 회복한다. 예측되지 않은 전쟁은 전쟁 발생 이후 약 1달간 조정이 나타나며, 1달 이내에 5~10% 지수 조정 이후 다시 반등했다. 대부분 사례는 주가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걸프전 초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 중 예외로 전쟁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이스라엘-아랍 갈등 사례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S&P500 주가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갈등 발생 직전 후 하락과 회복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고, 혹은 전체적인 횡보 추세를 바꾸지 못했다. 이례적인 사례는 1차 오일쇼크의 트리거가 된 4차 중동 전쟁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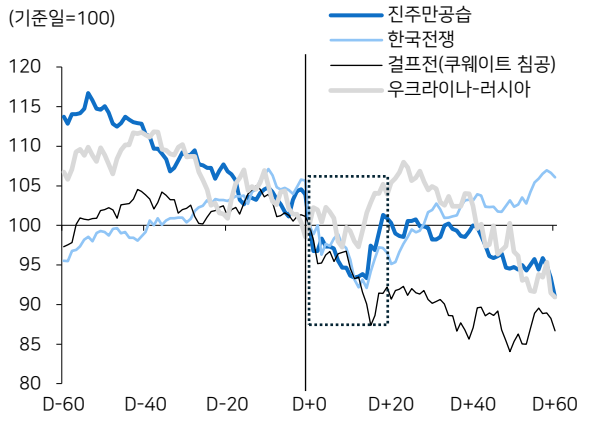
이번 사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직접 이란을 공격한 '예측된 전쟁'에 가깝다.

그림7 **예측된 전쟁 발생 전후 S&P50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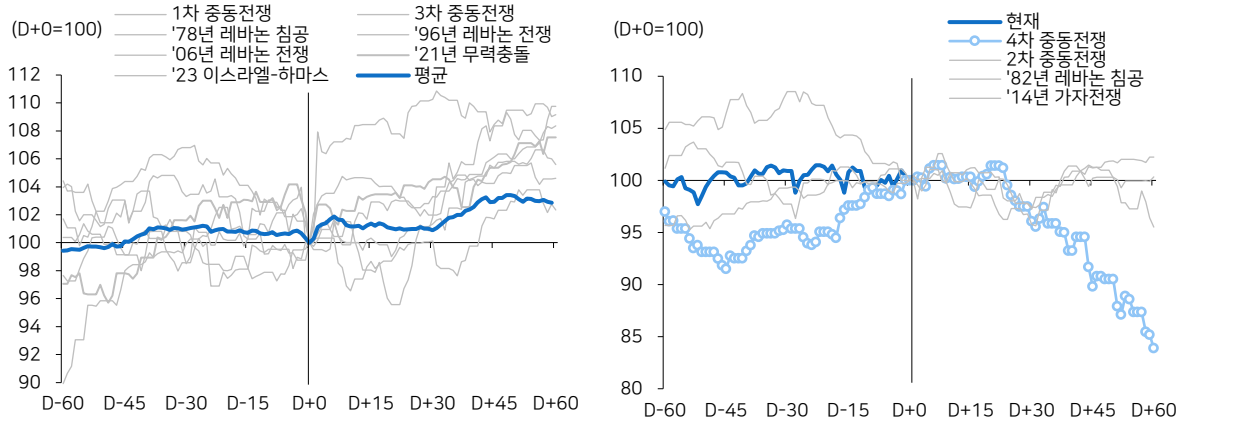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예측되지 않은 전쟁 발생 전후 S&P500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이스라엘-아랍 갈등 전후 S&P500 추이: 대부분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함. 추세 전환 유일 사례는 4차 중동전쟁(오일쇼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달 이상 추세 하락 리스크는 유가/BDTI(인플레) 관건, 트럼프 지지율도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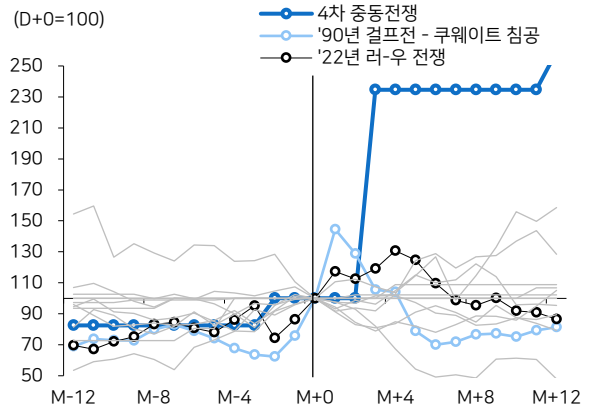
이번 사례에서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인플레 우려만 피한다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전쟁 케이스를 고려해도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지수 변동은 1달 이내 5~10% 내외로 생각한다. 미국, 아랍 세계 관련 전쟁 사례에서 주식시장이 추세 하락 전환된 3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은 '유가 급등'이다. 이 사례들에서는 전쟁 발생 전후 약 6개월간 2배 이상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으로 유가가 100달러/배럴 이상 상승한다면 시장이 2022년 사례를 떠올리며 하락 구간이 1달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2022년 사례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1) 유가 변동성 시작점이 그때보다 낮아서(2026년 65달러 vs 2022년 90달러) 심리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안정될 확률이 더 높다. 2) 그리고 2021-2022년은 금리인하 끝자락에서 주식시장의 통화정책 민감도가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시기로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이 시장 추세에 핵심 변수였다면, 지금은 AI 주도 산업의 성장이 시장 추세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추세를 지키는 힘은 2022년보다 단단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한 리스크도 있다. 최근 전쟁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에서 미국은 전부 자국민의 희생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전쟁 혹은 전쟁 원조를 수행해왔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미국 군인이 직접 참여해 이미 사망자까지 보도되는 상황이다. 2025년 9월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지지율과 함께 하락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밸류에이션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전쟁에 따른 미국 내 민심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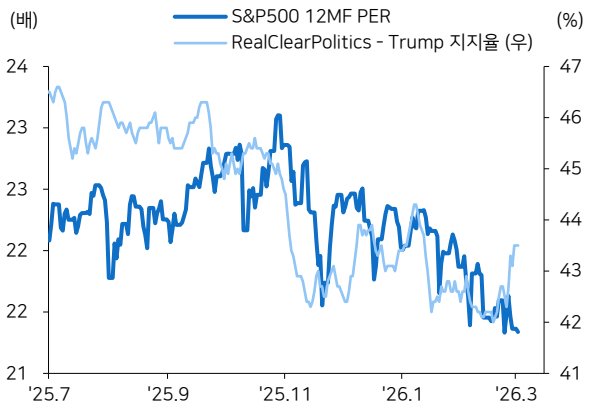
유가와 함께 이번 전쟁해서 체크할 인플레 우려 관련 지표는 BDTI(Baltic Dirty Tanker Index, 원유 탱커 스팟 운임 지표)다. 2022년 러시아 원유 제재 이슈로 BDTI가 전쟁 초기 이후에도 급등해 연간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 관련 이번 사안과 함께 주시해야 한다.

그림10 **주가 추세 하락 사례의 유가, 전쟁 전후 약 6개월 상승**



자료: Bloomberg, Macro Trend Da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과 S&P500 밸류에이션**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신흥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최설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개장한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은 장 초반 대비 하락폭을 축소해가는 양상이며, 대부분 2%대의 낙폭으로 마감했다. 이는 장기전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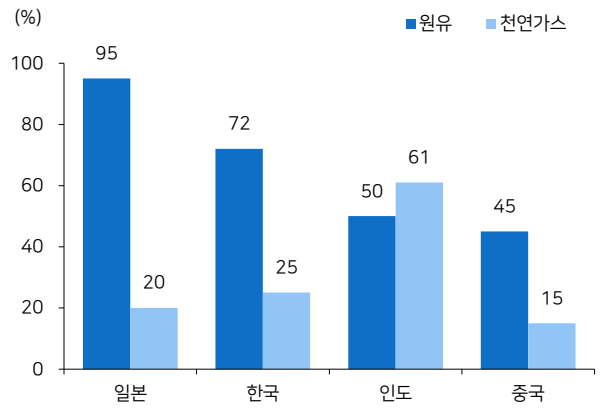
그러나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기간과 관련해 '4주에서 5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건 전개의 핵심은 △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재개 여부와 △ OPEC+ 추가 증산 합의에 달려있다. 또한 △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3월 말 미국과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이다.

만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하락 변동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일본, 한국, 인도, 중국 등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국가 경제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크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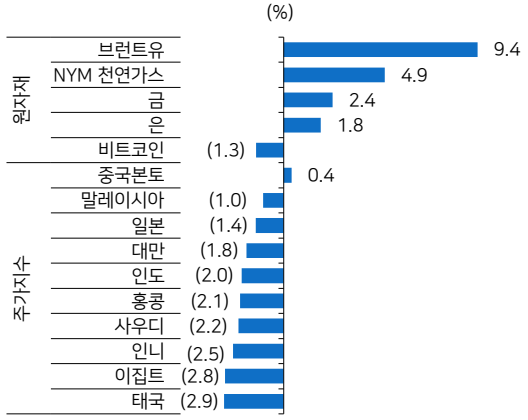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에 원유, 천연가스, 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반면, 비트코인은 3월 1일 하락 후 2일에 다시 소폭 반등했다(그림 13). 단기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귀금속 ETF와 원자재 수출국(브라질, 멕시코 등)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되,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항공, 화학 섹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사의 기본 가정은 수주 내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공습이 종료될 기미가 보이는 3~4주차에는 낙폭이 과도한 국가와 우량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그림12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 비교**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IEA, KITA, 인도상업청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와 주요 아시아 주가지수 등락폭**



주: 자산 가격은 3/2일 오후 17:15 기준, 비트코인은 3/1~2일 가격 변동폭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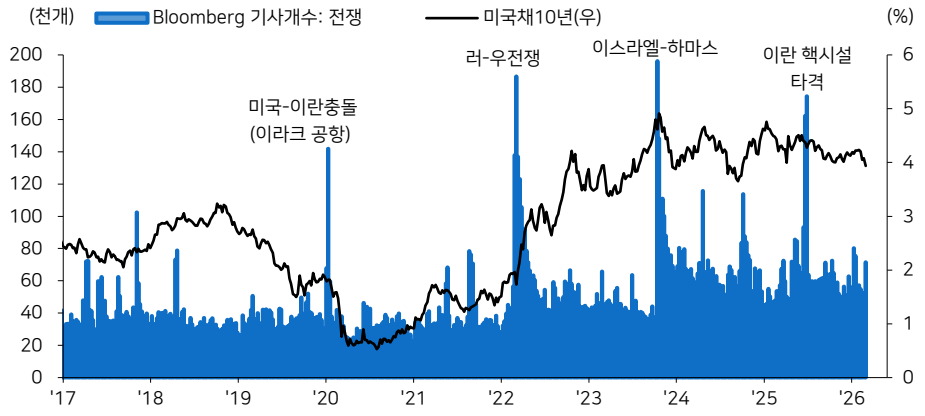
4. 채권전략: 안전자산으로 강세보단 인플레이션 민감도 주목(윤여삼)

2월 27일 미국채10년 금리는 3.94%로 마무리, 작년 10월 3%대 진입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3%대 진입했다. 현재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이란 전쟁 반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가 아닌 영국발 모기지 업체 MFS의 파산(credit issue)이 주도한 금리하락이었다.

오히려 3월 2일 우리는 휴장인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채10년 금리는 2bp 넘게 오른 3.96%로 오히려 반등 중이다. 전쟁이 유발하는 안전선호는 금이나 현물자산에는 긍정적이나 채권시장은 2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유발한다.

1)전쟁으로 실물경제 및 위험자산 조정이 얼마나 강하게 진행될지 여부와 2)공급망 충격을 유발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유발할지 여부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시장이 주목하는 쪽은 1)번보다 2)번에 초점을 맞춘다. 유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충격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그림14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이 안전선호로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전쟁 자체보다는 유가 중심의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금리방향 결정**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1970~80년 중동전쟁 당시 어마한 유가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직결 미국 연방금리를 20%대 미국채10년 역시 15%를 넘게 끌어올렸던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오일 쇼크 수준은 아니라고 하나 2010년대 이후에도 중동과 러시아 등에서 일어난 전쟁은 전쟁으로 채권수요보다는 유가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시켜 주었다〈그림 14, 15〉.

2020년 이란과 미국의 이라크 공항 충돌은 펜데믹으로 유가하락 및 시장금리 하락을 견인했다. 이후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당시는 유가 민감도가 미국금리 상승을 자극했다.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타격은 단기간 종료된 이슈로 유가 민감도가 높지 않아 시장금리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었다.

브렌트 배럴당 100달러 이상 상승 시 미국금리 상승위험 증대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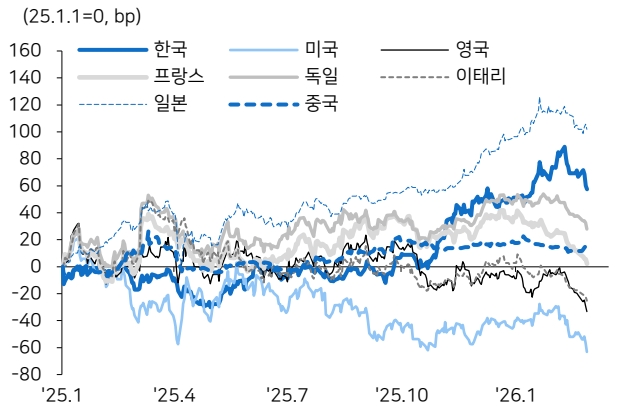
우리는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트럼프가 공헌하듯 3~4주 이내에 사태가 안정될 가능성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

해당 안정 흐름이 전제된다면 유가는 브렌트 기준 배럴당 85달러 내외 등락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다. 위험자산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이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안정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미국 금리는 최근 불거진 영국발 신용리스크의 추가 확산 여부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움직일 경향이 크다.

우리 예상과 달리 사태가 악화되어 브렌트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러-우 전쟁만큼은 아니어도 유사한 공급망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당시 전쟁이 유발할 원자재 가격상승 충격에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유입되면서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글로벌 채권시장은 약세장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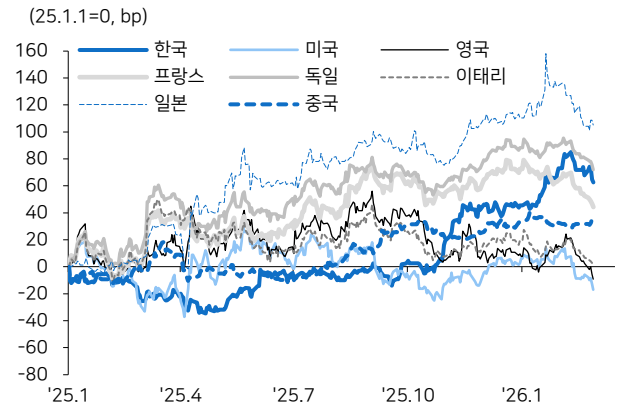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절대금리 레벨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원화 약세까지 더해져 일시적 긴축 전환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제 안정흐름을 찾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은 전쟁장기화를 주식만큼 두려워해야 한다. 해당 시나리오상 미국채10년 4.5%와 국고10년 4.0%까지 상단을 예상한다.

그림16 **주요국 10년 금리추이: 미국금리 하락세로 전환 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주요국 30년 금리추이: 재정 건정성 확보가 중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